

‘덴동어미화전가’의 서사적 특성과 현실인식 연구

문 석 호*

목	차
I. 서론	III. 작품에 나타난 현실인식
II. 서사적 가사로서의 ‘덴동어미화전가’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덴동어미화전가’는 “소백산대관록”이라는 책에 실려전하는 장편가사이다.¹⁾ 이 작품은 화전가라는 익숙한 틀에 한 여인의 일생을 파노라마로 엮어내면서 액자 구조의 입체적 틀, 여성의 고난에 대한 눈물겨운 형상, 봉건해체기 경제법칙의 가혹성, 노동의 신성함, 비극적 운명의 파토스²⁾ 등을 구현하면서 주목받은 작품이다.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화전가인데, 일반적인 화전가의 내용과는 다른 측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내용의 대부분이 덴동어미라는 과부의 일생담으로 채워져 있어서 등장인물인 덴동어미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화전가와 구별하여 ‘덴동어미화전가’로 많이 알려져 있다. 작품이 소개된 후, 작품에 대한 일반적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덴동어미의 일생이 제기하는 문제와 하층민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주제적 측면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³⁾ 두 번째는 서사구조, 화자, 시점의 문제를 중심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 논문에서의 자료는 이정옥의 『내방가사의 향유자연구』(박이정, 1999)에 경북대본 「화전가」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것을 인용하고자 한다. 같은 자료로 김문기의 『서민가사 연구』(형설출판사, 1983)에도 실려 있다.

2) 고미숙, 앞의 책, p.18

3) 김문기, 『서민가사연구』형설출판사, 1983.

으로 한 것이다.⁴⁾ 최근에 들어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논의들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성 의식과 미적특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주의적 측면에서 작품을 보려는 움직임이나 당대의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여성 의식에 대하여 고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하여 「덴동어미화전기」는 그 작품자체의 미적 특성과 서사구조, 작품을 둘러싼 사회구조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성과 하층민의 삶이라는 공통분모에 대하여 논의의 초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서사적 가사로서의 장르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당대의 현실상황과 여성 삶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서사적 가사로서의 「덴동어미화전기」

1. 자기 고백적 시점

이야기를 인식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자를 화자라고 하고 그 화자의 이야기 인식의 원리를 시점이라고 한다. 화자의 이야기 전달 원리는 서술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서술의 방법을 記述上으로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시점은 누가 어떤 방향에서 대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야기성을 갖춘 작품을 독자에게 전달할 경우 작가 또는 서술자에 의해 설정된 시점은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신태수, 「〈화전기〉와 조선후기 개가 긍정문학의 대두」, 『영남어문학』 제 14집, 1988.

유해춘, 「화전기(경북대본)의 구조와 의미」, 『어문학』 51, 한국어문학회, 1990.

정몽모, 「〈덴동어미 화전기〉의 세계인식과 조선 후기 몰락 하층민의 양상」, 『어문논집』 제 30집, 고려대 국어국문학회, 1991.

김종철, 「운명의 얼굴과 신명 - 〈뉘동어미 화전기〉」, 『한국 고전시가 작품론』, 집문당, 1991.

박혜숙, 「여성문학의 시각에서 본 〈덴동어미화전기〉」, 『인제논총』 제 18권, 제 2호, 인제대 1992.

4) 김유경, 「서사가사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88.

장정수, 「서사가사 특성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9.

서영숙, 「여성가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5) 김종철, 「〈덴동어미화전기〉 연구(1)」, 『19세기 시가 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고혜경, 「〈덴동어미 화전기〉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 35집, 1995.

박정혜, 「덴동어미 화전기가 나타난 혼인 및 개가의식 연구」, 한국국어교육학회, 1998.

박경주, 「뉘동어미의 여성 의식의 변화 양상 고찰」, 한국국어교육학회, 1999.

「여성문학의 시각에서 본 19세기 여성의 실상과 의미」, 〈변강쇠가〉, 〈미알과장〉, 〈뉘동어미화전기〉의 비교를 통해, 한국국어교육학회, 2001.

고정희, 「뉘동어미화전기의 미적 특징과 아이러니」, 국어교육연구학회, 2003.

함복희, 「덴동어미 화전기의 서술특성과 주제적 의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박혜숙, 「덴동어미 화전기와 여성의 연대 의식」, 『여성문학연구』 14권, 한국여성문학회, 2006.

가사는 전통적으로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오면서 산문화의 영향으로 서사의 양식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서사적 경향을 지닌 작품들은 시점의 다양화를 꾀해 독자에게 작가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려준다. 특히 조선후기 이야기성을 갖춘 서사적 가사가 창작되면서 작품 내에 여러 시점이 섞이는 시점의 變移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이 시기의 다양한 문학외적 현상을 나타내기 위한 가사 나름의 모색⁶⁾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사회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산문문학이 중대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 특히 한문 전기 소설, 몽유록계 소설이 액자소설이라는 이중구조를 통하여 나름대로 소설의 양식적 다변화의 시도⁷⁾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다른 장르에 대하여 개방적이었던 가사는 이러한 소설의 양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덴동어미화전기’의 구조적 특성을 보았을 때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은 액자구조의 형식이라고 하겠다. ‘덴동어미화전기’가 다른 ‘화전기’ 계열의 작품과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내부의 이야기가 한 인물의 일생에 대한 고백담으로서 서사성이 매우 강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일반의 ‘화전기’의 경우 화전놀이를 가서 자신이 지은 歌辭를 자신이 직접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 작품의 화자는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교술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화전기’는 “서사 - 신변탄식 - 봄의 찬미 - 놀이공론 - 통문돌리기 - 舅姑승락 - 준비 - 치장 - 승지찬미 - 화전급기 - 회식 - 遊興嘯詠 - 罷宴感懷 - 이별과 재기약 - 귀가 - 발문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반면 ‘덴동어미화전기’의 경우는 내부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인물의 일생담에 기대어 서사적 구조를 갖추고 전개되어 있다. ‘덴동어미화전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서사(외부 이야기) : 화전놀이의 광경 - 화전놀이 준비, 치장, 승지 찬미, 화전 급기, 유흥, 청춘과녀의 신변탄식

본사(내부 이야기) : 덴동어미의 일생

①장이방의 집과 혼인 - 남편이 그네에서 떨어져 죽음

②이승발의 후취로 두 번째 혼인 - 관청의 세금포탈로 집안 몰락, 남편이 괴질로 죽음

③황도령과의 만남과 혼인 - 홍수로 남편이 죽음

④조서방과의 네 번째 혼인 - 남편은 불에 타 죽고 아들은 덴동이가 됨.

⑤고향에 돌아옴 - 잘못된 개가의 예를 들면서 개가지지 말 것을 권유

결사(외부 이야기) : 봄춘자 노래와 꽃화자 타령, 이별과 재기약

‘덴동어미화전기’의 외부 서술자는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부의

6) 함복희, 앞의 논문, p.152.

7) 함복희, 앞의 논문, p.153.

8) 권영철·주정원, 『화전기연구』, 형설출판사, 1981, p.45.

이야기가 덴둥어미라는 인물에 기대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결사 부분에서는 재기약을 다짐하면서 이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액자구조의 서술은 기본적으로 목격담이나 증언담의 형태를 띤다.⁹⁾그러면서 외부의 이야기와 내부의 이야기의 거리화를 통하여 서술자의 존재를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액자 구조에서는 둘 이상의 서술자가 존재하게 된다. 즉 작품의 외부 서술자와 내부 서술자가 있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덴둥어미화전가」는 1인칭 시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외부의 이야기는 관찰자적 시점을 이루고 있으면서 내부 이야기는 덴둥어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주인공 시점으로 변한다.¹⁰⁾ 하지만 주된 서술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유지하고 있다. 먼저 외부 이야기를 살펴보자.

가세 가세 화전을 가세 뜻 지기전의 화전 가세
잇떡가 어늦 썩가 썩마참 三月이라
동군니 포덕떡하니 춘화일난 썩가 맛고
화신품이 화공되여 만화방창 단청되니
이른 썩을 일치말고 화전노름 하여 보세
불출문의 하다가겨 소풍도 하려니와
우리 비록 여자라도 흥채 잇게 노라보세
웃던 부인은 맘이 커서 가로 혼 말 퍼니 노코 (중략)
건넌 집의 된둥어미 옛 혼 고리 이고 가서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가 화전을 떠나기 앞서 준비 과정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우리 비록 여자라도’라는 구절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작품의 외부 서술자는 분명히 1인칭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웃던 부인’은 화전놀이 에 참여하려는 부인들 중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현장에 ‘덴둥어미’라는 인물은 ‘옛 혼 고리 이고’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서술자는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열일곱살 청춘과여 나도 갖치 놀너 가지
나도 인물 좃컨마난 단장 흘마음 전여옵너(중략)
춤도 춤며 노리도 하니 우습 소리 낭자흔디
그 중의 청춘과여 눈물 큰물 귀뽀하다
혼 부인이 이른 마리 조은 풍경 존 노름의

-
- 9)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목격한)들은 이야기다.’의 형태로 액자의 서술자는 목격자나 증언자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경우 寫實性的의 幻想을 창조하게 된다.
 - 10)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 함복희는 앞의 논문에서 내부는 1인칭, 외부는 3인칭의 시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한기, 「가사에 나타난 서사적 기법의 특성 연구」, (언어논문, 2000)에서는 「덴둥어미화전가」는 1인칭으로 인물의 사건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으면서 서술자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양상들은 조선 후기의 서사적 가사 작품들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부가」, 「용부가」, 「노처녀가」 등의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무슨 근심 더단히서 낙누한심 원일이요

외부의 서술자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청춘과녀와 덴동어미의 대화를 끌어들이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버린다. 이후는 덴동어미의 일생담이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외부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화전놀이 준비과정은 덴동어미의 일생담을 이야기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술자가 직접 덴동어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덴동어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내부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서술자는 자연스럽게 덴동어미로 이동하고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의 서술자는 독자에게 전달하고자하는 의미를 덴동어미의 일생담의 고백을 통하여 드러낸다.

이러한 시점의 선택은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의 서술자를 다르게 함으로써 내부 이야기로 들어갔을 때 내부 이야기의 주체인 덴동어미가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만든다.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대화도 나타나지만 주인공인 덴동어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인물들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군데군데 들어가지만 주된 서술자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덴동어미이며, 덴동어미의 시선과 감정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힘이다. 황도령과의 대화부분이다.

하도 나 신세 곤궁기로 이너 마암 비창하오
 아무리 곤궁흔들 날과 갖치 곤궁홀가
 우리 집이 자손 귀히 오더 독신 우리 부친
 오십이 늙도록 자식 읍서 일싱흔탄 무궁타가
 신다섯세 놀 나온이 六大 독자 나 하나라
 장중보옥 으뜸갓치 안고 지고 깨우더니
 세살 먹어 모친 죽고 네 살 먹어 부친 죽니
 강근지족 본디읍서 외조모의 손에 키나더니

서술자인 덴동어미가 화전놀이의 현장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덴동어미가 과거에 황도령에게 들은 이야기를 청춘과녀나 다른 여인들에게 다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1인칭 주인공인 인물시점¹¹⁾에 기대어 덴동어미가 자신의 일생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술자인 덴동어미는 자신의 세 번째 남편인 황도령과 만나면서 그의 기구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다시 전달하게 된다. 이는 자기 고백적으로 일생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덴동어미의 태도를 통하여 나타난다. 즉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야기의 중심축이면서 서술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덴

11) 함복희, (앞의 논문, pp.155~156.)에서 부분적으로 내부 액자에 전지적 시점의 개입을 언급하고 있다. '세 살 먹어 모친 죽고, 네 살 먹어 부친 죽고 외조모의 손에 자라는 것은 1인칭으로 서술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정한기의 앞의 논문에서는 서술자의 충위를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침투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인물 시점과 서술자 시점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덴동어미는 과거 자신의 삶의 역정을 청춘과녀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긴 대화 속에 덴동어미의 일생담이 인과적으로 나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덴동어미 듯다가서 썩 나서며 하는 마리
가 지나 오가지 말고 저발 적선 가지 말게(중략)
아무 곳의 단양이네 갓스물의 가장 죽고
남의 첩으로 가더니만 큰어미가 사나워서
삼사사시 싸우다가 비상을 먹고 죽었다니
안자 우든 청춘과부 황연디각 씨달나서
덴동어미 말 드르니 말씀마다 기기 오리

여기서 덴동어미는 네 번의 喪夫와 세 번의 改嫁라는 결코 흔하지 않은 경험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청춘과녀에게 고백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것은 1인칭이라는 범주 제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끌어내는 데에 가장 적절한 형식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고백이란 단순한 개인사의 고백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과 의도된 것, 처한 상황과 바라는 상황의 모순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인간 삶의 이중성을 드러내기 위한 고백이다. 덴동어미의 일생담의 고백 속에는 현실의 무거운 짐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눈물겨운 분투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였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내부의 이야기는 1인칭의 인물인 덴동어미를 통하여 이야기를 질서 있게 배열¹²⁾하고 그 속에 드러나는 삶의 이중성을 통하여 현실의 모순과 고통을 보여주게 된다. 단순한 체험의 기록이 아니라 작품 내부의 서술자인 덴동어미의 고백적 서술은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가는 인간 삶의 보편적 모순이라는 측면을 화전가의 양식을 빌려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2. 적극적 인물의 형상화

「덴동어미화전가」에서는 상황에 대한 의지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패턴¹³⁾의 반복으로 창조적 인물의 형상화가 나타나고 있다. 喪夫와 改嫁의 반복된 패턴은 덴동어미라는 인물의 욕망 형상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마치 상부를 반복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지만 개가를 통하여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식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덴동어미의 개가 과정에서 자신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정한기, 앞의 논문, p.118.

13) 패턴이란 의미 있는 사건이나 행동의 반복을 말하며 주제나 성격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인물의 의식의 발전을 보여줄 수 있다.

쥬야읍시 하 실피 우니 보나니마다 눈물니네
 시부모임 하신 말삼 친정가서 잘 잊거라
 나는 아니 갈나하나 달니면서 기유하니
 홀 슈 읍서 허락하고 친정이라 도라오니
 三穢장이나 놉푼 낭기 날乙 보고 늦기는 듯(중략)
 너무 답답 못 살깃니 밤낮으로 통곡하니
 양 곳 부모 의논하고 상쥬읍의 출가하니
 이상찰의 며느리 되어 이승발 후취로 드리가니

열일곱에 과부가 된 덴동어미가 밤낮으로 통곡하자 이를 불쌍히 여긴 양가의 부모가 의논하여 상주읍李子방 집에 후취로 개가를 시키는 내용이다. 개가 후에 만난 남편에 대하여 '낭군도 출동하고 인심도 거룩하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덴동어미는 새로운 가정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은 다시 변한다.

스스로 만족하였던 결혼 생활은 이포 때문에 시댁이 몰락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덴동어미는 좌절하지 않고 손군노의 집 드난살이를 감수하면서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린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억척스러울 정도로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 체면치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을 설득해서 삼년 동안 만여금이나 되는 돈을 모은다. 그러나 남편은 병술년 괴질로 죽고 만다. 그리고 황도령을 만나게 된다.

가만이 숨숨 심각하니 먼저 으든 두 낭군은
 흥문온의 사더부요 큰부자의 세간사리
 피가망신 하여시니 흥진비리 그러헌가
 저 총각의 말 드로니 육더 독자 내려오다가
 죽은 목숨 사라시니 고진감니홀가 부다

덴동어미는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과정과 황도령의 죽을 뻔 했던 목숨을 겨우 살아온 삶에 대해서 들으면서 興盡悲來와 苦盡甘來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는 첫 번째 개가의 경우처럼 부모의 중매에 의하여 주선된 것과는 다르게 자신이 개가에 대한 명분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에 의하여 개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모습은 신분상의 몰락과 경제적 궁핍이라는 자신의 처지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덴동어미는 첫 번째의 개가에서 이미 남편의 집 드난살이를 하면서 친한 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인 문제는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황도령은 사기를 지고 덴동어미는 '사기 광우리 이고 가가호호이 도부훈다'는 장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경제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도령마저도 산사태에 잃고 조침지를 만나게 되는데, 남편의 직업과 경제력에 대하여 꼼꼼히 따지게 된다. 이는 덴동어미의 개가의 문제가 생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 집으로 드리달나 우선 영감을 자세보니
나온 비록 마느나마 괴상이 든든 순휴하다
마로라는 웃지하여 이 지경의 이르런나
네 팔자가 무상하여 만고풍상 다 적거소
그날부터 양주되어 영감홀미 살임혼다

덴동어미는 벌써 세 번의 상부를 겪었지만 다시 개가를 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인댁의 권유도 있었지만 이미 주인댁에게서 저 먹기는 태평이라는 말을 들었고 남편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묻고서 개가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덴동어미는 집안의 살림을 주로 맡아 하게 되고 남편은 밖에서 엿을 직접 파는 일을 하게 된다. 하지만 덴동어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죽음 때문에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덴동어미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어도 '엿 한고리'를 머리에 이고 화전놀이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고 삶에 대하여 주눅 들지 않는 적극성을 드러낸다. 반복되는 상부와 개가의 패턴은 덴동어미가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고 단순히 인간적 삶의 행복을 찾으려던 덴동어미에게 현실의 경제적 구조에 구속당하는 인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서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번의 상부와 세 번의 개가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적 고난을 헤쳐 나가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인물의 형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3. 작품의 구조

작품에 드러나는 구조의 특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액자 구조이다. 앞에서 서술자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작품의 액자 형식은 분석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형식이 작품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작품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종철은 내부 이야기의 덴동어미의 일생담을 중심으로 하여 외부의 이야기는 전후가 완벽하게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¹⁴⁾고 하였다. 따라서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는 구조의 측면에서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외부 이야기에서 시작 되는 봄이라는 계절은 청춘과녀의 신세한탄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청춘과녀에게 봄은 자신의 슬픔을 더하게 하는 비극적 요소일 뿐이다. 그래서 화전놀이라는 즐겁고 흥겨워야 할 현장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 더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 청춘과녀가 만나게 되는 인물이 덴동어미이다. 덴동어미는 청춘과녀가 겪고

14) 김종철, 앞의 책, pp.770~772.

'덴동어미의 인생 역정'을 중심으로 하여 '화전놀이 권유 - 화전놀이 준비 - 관습적인 화전놀이 - 청춘과부의 슬픔과 방황'이 '청춘과부의 깨달음 - 화전놀이의 진정한 즐길 - 화전놀이의 마무리 - 내년 놀이의 기약'과 역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해춘도 앞의 논문에서 작품의 형식적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구조가 내용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있는 상부의 아픔을 같은 나이에 겪었던 인물로 청춘과녀라는 인물이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깨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다. 결국 '청춘과녀의 신세 한탄 - 덴동어미의 일생담 - 청춘과녀의 깨달음'이라는 이야기 구조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덴동어미는 이미 청춘과녀보다 앞선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기에 청춘과녀가 생각하는 삶의 고민을 먼저 하였던 인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춘과녀의 신세한탄이 남다르게 느껴지게 된다.

열일곱살 청춘과여 나도 갖치 놀너 가지
나도 인물 좃컨마난 단장 홀마음 전여웁너
썩나 읍시 서슈하고 거친 머리 디강만자(중략)
외고리 시 썩다르니 입은 정영 간곳웁고
초불만 경경 불멸하니 악가 우던 저눔우 시가
잔니는 뜻고 좃타하되 날과 빅연 원슈로세
어디 가서 못 우러서 굿티야 니 단잠 썩우논고
화전노름이 조타하되 심회乙 조금 풀가하고
잔니을 짜라 참예하니 촉쳐감창 썩이로서
보나니 족족 눈물이요 드나니 족족 한심일세
천하만물이 썩이 잇건만 나는 옷지 썩이 읍나
시소리 드러도 회심하고 썩 핀걸 보으도 비창하니
이고 답답 너팔자야 옷지 하여야 조홀게나

인간이 살아 있다는 것은 그 살아 있음으로 인하여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청춘과녀에게 남편의 죽음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절망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생명력이나 화려함은 청춘과녀에게는 오히려 슬픔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여기서 이 작품의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삶의 이중성을 찾아볼 수 있다. 봄이라는 계절이 인간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도 있으며, 그 계절이 오히려 인간을 더 아프고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덴동어미가 열일곱이라는 인생의 봄에 이미 경험한 것으로 덴동어미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육십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인생은 밝음과 어두움이 존재하게 되는데 덴동어미는 남편을 만나는 순간의 행복도 느꼈지만 남편과 헤어지는 순간의 절망도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덴동어미가 걸었던 긴 인생은 슬픔의 봄과 기쁨의 봄이 연속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덴동어미의 인생은 인간 삶의 모순이라는 '삶의 이중성' 속에 항상 놓여 있었던 것이다. 언제나 자신의 삶의 봄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네 명의 남편을 잃고 마지막에는 자식까지 불에 데어 병신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그러므로 덴동어미가 찾은 고향에서의 봄은 그러한 비극성을 극대화 시키게 된다.

그늘 밋던 은행나무 불기청음더아귀라
난더 읍는 구견시가 머리 우의 둥둥썩서

불여귀불여귀 슬피우니 서방임 죽은 녀시로다
시아시아 두견시아 너가 옷지 알고 울 줄
여기 와서 슬피 우러 너 스럼을 불너너라
반가와서 우러던가 서러워서 우러던가
서방임의 녀시거든 너 압프로 나라오고
임의 녀시 아니거든 아조 멀이 나라 가게
뒤견시가 펼적 나라 너 억기의 안자 우니
임의 녀시 분명하다 익고 탐탐 반가워라
나는 사라 육신이 완더 녀시라도 반가워라
건 오십년 이곳이서 날 오기올 지다려나
어이홀고 어이홀고 후회막급 어이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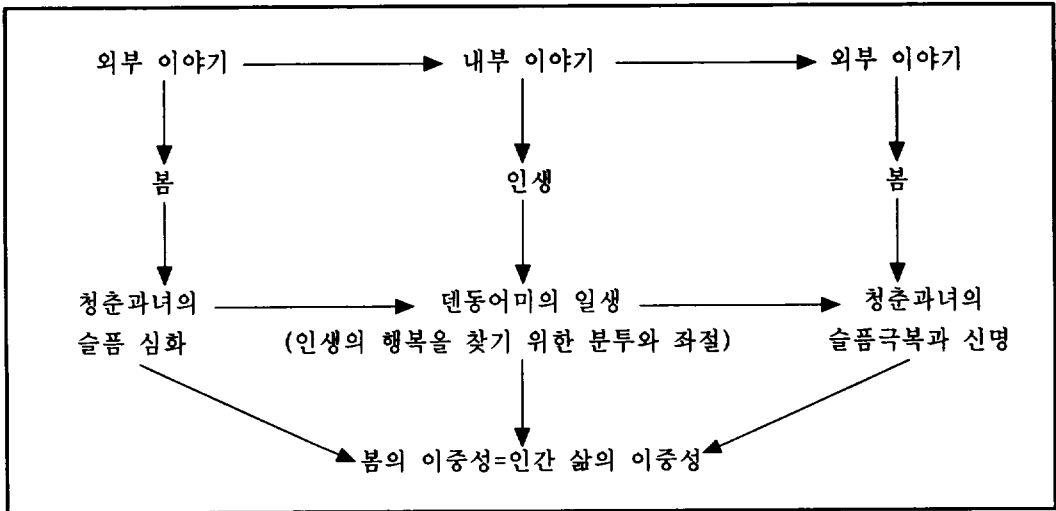
이 장면은 인생의 풍상을 다 겪고 난 후 여인이 찾은 고향에서 느끼게 되는 비극적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늙고 지쳐버린 덴동어미의 모습과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싱싱함을 발산하고 있는 은행나무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남편의 녀으로 상징되고 있는 두견새가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봄이라는 계절임을 알 수 있는데 그 두견새의 출현도 덴동어미의 슬픔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자신은 살아 있지만 죽은 남편을 녀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의 묘사는 덴동어미가 겪은 그 어떤 슬픔의 형상도 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덴동어미의 처절하고 절망적인 팔자타령이 이어지게 된다. 자신의 팔자를 속이지 못하고 만나게 되는 두견새를 보기가 부끄럽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덴동어미가 현실에 대하여 분투하고 노력하였지만 나타난 결과였다. 하지만 여기서 덴동어미가 패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덴동어미가 고향에 돌아와 두견새와 은행나무를 통하여 그 비극의 극점을 만났기에 외부 이야기의 처음 장면에 나타나는 덴동어미의 적극적이고 애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같은 봄이라는 시간에 존재하지만 덴동어미는 인생의 가을에 비극의 극점을 넘어서고 그를 통하여 삶을 달관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지만 청춘과녀는 이제 인생의 봄이면서 자연의 봄 속에서 상부의 슬픔을 견뎌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인 것이다.

덴동어미는 이제 자신이 짊어졌던 내부 이야기에서의 삶의 무게를 청춘과녀에게 전달하였고 청춘과녀는 내부 이야기의 무게의 깊이와 소통하게 된다. 그 소통은 외부 이야기(청춘과녀의 신세한탄) - 내부 이야기(덴동어미의 인간 삶의 비극적 이중성의 삶) - 외부 이야기(청춘과녀의 깨달음과 신명)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소통은 청춘과녀를 다시 봄의 생명력이 넘치는 열일곱 살의 여인으로 태어나게 한다.

안자 우든 청춘과부 황연디각 씨달나서
덴동어미 말 드르니 말씀마다 지기 오러
이니 슈심 풀러니여 이리저리 부치보셔
이팔청춘 이니 마음 봄 춘짜로 부쳐두고
화용윌터 이니 얼골 솟 화짜로 부쳐두고 (중략)

천만첩이나 써인 스름 우습 꽃터 실실 풀애
 三冬설흔 싸인 눈니 봄춘자 만나 실실 녹니
 자니 말은 봄 춘자요 니 생각은 꽃화자라

여기서 청춘과녀는 신명나는 봄춘자 노래를 부르게 된다. 청춘과녀에게 외부 이야기 처음의 봄은 슬픔이었지만 외부 이야기 마지막의 봄은 신명이었다. 덴동어미는 긴 인생에서 그러한 슬픔과 기쁨을 반복해서 경험하였다. 그리고 덴동어미는 생명력 넘치는 봄을 보내고 가을에 와서야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덴동어미화전가」의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 삶의 이중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생과 계절이 하나라는 것이고 그 속에 언제나 모순이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Ⅲ. 작품에 나타난 현실인식

1. 경제구조의 변화와 하층민의 삶

「덴동어미화전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첫 번째 남편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몰락했거나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거나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나름대로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연재해나 질병 등의 문제로 좌절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엄 혼 중의 슈금하고 슈만 양 이포 츠어니니
남전북답 조흔 전답 츠풍낙엽 찌나가고
안팍 줄힘낭 큰 지와집도 하로 아침의 남의 집되고 (중략)
우리도 이리히서 버러가지고 고향가면
이방乙 못하며 호장乙 못하오 부러울게 무어시오

가혹한 이포 때문에 집안이 갑자기 몰락하게 되는 장면이다. 여기서 덴동어미는 신분의 하락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덴동어미는 직접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전의 신분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임상찰의 짜임이요 니상찰의 아들노셔 돈도 돈도 좃치만는 너사나사 못하긴너'하는 남편을 설득하게 된다. 여기서 덴동어미는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돈을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고하나 체면 따위는 덴동어미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고생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신분의 변화까지 보장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기에 남편은 고리대금에까지 손을 대고 만금을 벌게 된다.¹⁵⁾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걸게 된 것이다. 특히, 덴동어미는 정말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인물이 된다. 이는 덴동어미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덴동어미를 더욱 채찍질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안락했을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화폐경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병술연 괴질 닥쳐고나 안팍소실 三十여명이
홉박 모도 병이 드려 사을 마니 찌나보니
三十名 소슬 다죽고서 주인혼나 나하나 뿐이라
슈千戶가 다죽고서 사라나니 몇읍다너

하지만 덴동어미의 이러한 노력은 병술년 괴질로 남편이 죽고 빌려준 돈도 빌려간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면서 허망하게 끝나 버린다. 이제 덴동어미는 두 번째의 상부를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 상부에는 당시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덴동어미가 가졌던 신분상승의 욕구는 괴질에 의하여 좌절되었고, 그러면서 덴동어미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하층민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인식의 구조 역시 하층민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이는 덴동어미가 황도령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도 잘 나타나게 된다.

· 여보시요 말씀 듯소 우리 사경乙 논지컨던

15) 남편의 고리대금에 대한 이야기는 후에 다루고 있다.

16) 박정혜, 앞의 논문, pp.192~193.

三十 너른 노총각과 三十 너른 홀과부라
 총각의 신세도 가련하고 마노라 신세도 가련하니
 가련한 삶 서로 만나 갖치 늘그면 웃터하오
 가만이 숨숨 심각하니 먼저 으든 두 남군은
 흥문은의 사더부요 큰부자의 세간사리
 피가망신 하여시니 흥진비리 그러흔가
 저 총각의 말 드로니 육터 독자 내려오다가
 죽은 목숨 사라시니 고진감너홀가 부다

두 사람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생각은 두 사람이 심리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제 덴동어미에게 이전의 신분에 대한 욕구나 희망은 없다. 남편이 도부장수인 황도령이기에 더욱 그렇다. 오직 삶 그 자체가 중요한 가치이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과 힘든 싸움을 하게 된다. 그것은 일반의 서민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최소한의 행복이고 안락이다. ‘도부장사 혼십연흔니 장바군니니 털이웁고 모가지가 자리목되고 발가라이 무지러전니’하는 덴동어미의 푸념은 서민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덴동어미에게 다시 시련이 닥치게 된다. 산사태로 황도령이 죽게 되는 것이다.

쥬막 뒷산니 무너지며 주막터乙 째 가지고
 동희슈로 다라나니 사라 나리 뉘길고

여기서 덴동어미는 ‘아니 먹고 굴머 죽으랴’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주인댁의 만류는 덴동어미를 다시 서게 한다. 이미 세 번의 고통을 맞본 터라 덴동어미에게는 현실에서의 행복이 필요하였던 것인지도 모른다. 지극히 현세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세 번의 상부를 했기에 덴동어미의 의식은 지극히 본능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변모했고 그것은 도덕적 윤리나 가치로 재단할 수 없는 소박한 서민의 욕망이다. 그리하여 덴동어미는 조서방과 살림을 차린다. 조서방과의 만남으로 덴동어미는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찾는다. 지금까지 생기지 않았던 아이까지 얻게 된다. 그것은 덴동어미가 꿈꾼 현세에서의 최고의 행복이었을 것이다. ‘궁덩이 툭툭쳐보고 입도 쪽쪽 마쳐보고 그 자식이 잘도 난니 인지야 한번 사라보지’하는 장면이야말로 오십에 아이를 낳고 어머니로서의 기쁨을 느끼면서 삶의 참 행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박한 권리인 것이다. 하지만 그 권리는 덴동어미에게 없었다.

한 밤중에 바람이 불어서 불이 나고 조서방은 죽게 되고 귀한 아들은 덴동이 되고 만다. 그 후의 장면은 더욱 처참하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인 것이다. 병신이 된 아들에 대한 걱정,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드러난다. 성한 몸으로도 살아내기 힘든 삶을 병신이 된 아들이 그 질퍽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하는 자식에 대한 걱정은 어머니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그렇게 질기게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왔건만 덴동어미에게 남은 것은 늙은 육신과 병든 자식뿐이다. 삶의 과정은 눈물 나는 노력과 대결의 연속이었고, 좌절했지만 물러나지 나지 않고 버티고 다시 일어서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랬기에 덴동어미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 슬펐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의 강도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이는 하층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었다.

2. 사회구조의 변화와 당대 현실

「덴동어미화전기」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이포, 고리대업, 괴질, 산사태 등의 사회적 문제이다. 덴동어미가 두 번째 남편인 이승발의 후취로 가지만 이승발의 집안이 이포 때문에 몰락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지방 향리면 중인 정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이포는 이승발이나 덴동어미가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포는 아전들이 공금이나 관곡 등을 집어 쓴 빚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 후기 지방관아에 만연한 비리였다.¹⁷⁾ 덴동어미의 시집도 수만냥의 이포를 갚기 위해 모든 것을 탕진해야 하는 상황이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다.

남전복답 조흔 전답 추풍낙엽 떠나가고
안팎 줄형낭 큰 지와집도 하로 아침의 남의 집되고
압다지등 마지켄 두지며 큰 황소 적대마 서산나구
디양푼 소양푼 세슈디아 큰숫 즈근숫 단밤가마
늦쥬격 술축이 늦징반의 옥식괴 늦쥬발 실굽다리
게사다리 옷거리며 디병 통소 병풍 산슈병풍
자기홍농 반다지의 무쇠 두영 아르쇠 밧쳐
쌍용 그린 빗접고비 걸쇠동경 늦동경의
빅통지판 청동화로 요강 타구 지터리거짐
룡도머리 장목비 아울너 아조 활적 다파라도
슈천양 돈이 모지라서 일가 친척의 일족하니

이승발의 아버지인 이 이방이 이포를 몰다가 망했다는 말은 조선후기 향리층의 자기도

17) 향리들은 의무적으로 지방 관아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조선 시대에는 고려시대와 달리 그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지방관아에서 자체 수입 가운데 일부를 떼어 편법으로 향리들에게 약간의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시대 향리들은 공식적인 반대급부가 없더라도 자기 조상이 고려 시대에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확보해 놓은 토지와 노비 등의 경제적 기반을 물려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의 없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반대급부가 없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각종 폐해를 저지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박정혜, 앞의 논문, pp.188~189. 참조

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수만냥의 이포는 아전 한 사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새로운 수령이 부임하고 나서 일시에 망하게 되는 것은 수령권의 교체와 관련된 향리들의 세력다툼에서 패배¹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덴동어미의 집안도 유사한 향리 집안이었기 때문에 함께 망하게 됨으로써 덴동어미는 친정으로 가지 못하고 집안이 몰락하고 비극적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이다.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덴동어미와 남편은 경주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여주는 인생의 행로는 육체적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삶의 연속이었다. 그러면서도 덴동어미는 경주에서 금전적으로 상당한 부를 획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고리대업에 손을 댈다.

主人불너 하는 마리 우리 사환홀 거시니
 이빱양은 우선 주고 신양을낭 갈 썬 줘오(중략)
 우리 셔방임 거동 보소 돈 二百及을 바다노코
 日슈 月슈 체계노이 니손으로 셔괴하여
 낭중의다 간슈하고 슈자슈전 골둥이고

고리대업은 지배층들이 전형적으로 농민들을 수탈하는 방법이다. 이는 경제 행위에 대한 건전한 사고가 아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상당히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선 후기는 화폐경제가 성행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탐관오리의 횡포는 극에 달하고 있었다. 화폐경제는 조선 후기에는 봉건적 사회 질서를 분해시키는 작용을 일으킬 정도로 발달하였다. 아울러 이것에 기초하여 노동력이 상품으로 매매되고 인간간의 관계가 자본과 노동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 즉 자본주의적 관계가 싹트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은 곧 봉건적 조선 사회를 해체시켜 가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노동을 통하여 돈을 벌어들이고 그것이 건전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일에 뛰어 들므로써 현실을 타개해야 할 만큼 급박하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8) 정홍모, 앞의 논문, p.86.

이훈상, 「향리생활」,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2006 pp.251~252.

사실 이서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도 가계들 간의 경쟁과 친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방의 선임을 둘러싼 주도 가계들끼리의 암투는 정말로 치열하였다. 중앙권력자를 포함하여 일체 인사 청탁하지 않기로 약속하지만 몰래 청탁을 한다. 그 결과 그 약속은 번번이 깨진다. 인사 청탁에는 돈이 들어가고 이는 부패를 증대시킨다. 인사와 관련한 부패가 심해지다 보니 지방관은 차임하는 이서들에게 일종의 부정방지 예탁금을 거두는 관례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이를 착복하는 일이 빈번하여 지방 사회의 부패는 건잡을 수 없게 커졌다. 결국 설치의 목적과 달리 오히려 백성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여 착취를 증진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서들의 파산을 불러일으키는 단서가 되기도 했다. 공금을 유용하여 집안은 물론 일가친족에게까지 이를 배상토록 하여, 이 과정에서 파산한 이서 가문이 도처에서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이방을 거친 집안은 더욱 그러했다. 파산한 이방치고 지방관의 부패에 대한 책임까지 걸머지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었다.

덴동어미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이승발이 죽고 나서의 삶은 하층민으로서의 삶 그 자체이다. 만나게 된 황도령도 하층민으로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황도령은 어찌 보면 조선의 농촌의 사회구조가 무너지면서 떠돌아 다녀야 했던 당시의 유랑민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장사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다시 만난 덴동어미와의 삶 역시 한 곳에 머물거나 정착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도부를 이고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신세인 것이다. 잠시 황도령의 일생을 살펴보자

우리 집이 자손 귀히 오디 독신 우리 부친
오십이 넘도록 자식 읍서 일성헌탄 무궁타가
선다섯세 놀 나온이 六代 독자 나 하나라
장중보옥 으뜸갓치 안고 지고 케우더니
세살 먹어 모친 죽고 네 살 먹어 부친 죽니
강근지족 본디읍서 외조모 손의 키나더니
열네살 먹어 외조모 죽고 열다섯세 외조부 죽고
남의 빚데 늦견디서 의사촌 형제 도망하고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등으로 농촌에서는 토지를 잃은 '無土不農之民'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들어 죽거나 굶어죽는 자가 속출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고향을 버리고 유랑의 길을 떠나 한 마을 전체가 폐촌이 되기도 하였다.¹⁹⁾ 의사촌 형제의 경우 남의 빚을 건디지 못하고 도망을 간다고 하였는데 지불 능력이 없어지자 도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업기술의 발전은 사회구조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양법과 견종법으로 노동력이 절약되었고 그것은 개인이 토지면적당 경작률을 높게 만들었다. 조선 후기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이었다. 그러나 이양법과 견종법의 보급으로 단위면적당 경작률이 높아지자 소작할 땅을 얻는 데 있어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그럴수록 지주는 소작료를 올린다던가, 전세와 종자대를 소작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많아져 소작농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소작지를 확보한 일부 농민들은 부농으로 성장하여 갔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지조차 얻지 못하게 되었다. 소작지조차 얻지 못하는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도시나 광산으로 가서 자신의 품을 팔아 생활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되거나, 도적떼가 되기도 하였다.

황도령의 경우 머슴살이는 자의적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사회적 여건들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머슴살이 정도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형태의 고용노동자로서의 모습은 「늘부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 정홍모, 앞의 논문, p.89.

놀부 마음에 호뭇하여 대통에 열 낭씩을 정하고 박을 켜다.

“슬근슬근 툽질이야.”

힘써 켜고 보니 한 때 거문고쟁이가 나오며 하는 말이,

“우리 놀부 인심이 좋고 풍류를 좋아한다 하기에 놀고 가옵네.”

‘등딩등딩 등딩등딩’ 하기에, 놀부가 이것을 보고 재보를 원망하는 말이,

놀부와 재보의 관계를 보면 고용노동자로서 재보의 역할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박 한 통에 열 낭씩이라고 정해놓고 박을 켜는 행위를 보면 당시의 경제구조에서 이러한 임금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사회적 조건이었을 것이다. 병이라든가 자연재해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산을 모았다고 하여도 다시 날아가 버리는 생활의 반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황도령과 덴동어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황도령과 덴동어미의 고달픈 생활과 황도령의 죽음은 농촌 사회에서 도태되어 유랑민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하층민들의 삶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3. 유교적 이념의 변화와 개가

조선이라는 사회는 여성에 대한 규제가 많았던 사회이다. 유교적인 윤리규범을 일상 생활속에 정착시키고자하는 지배층의 노력은 재혼문제에 대하여 특히 엄격하였다. 그러한 지배층의 성리학적 이념은 여성들을 지배하였고 여성의 개가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여성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았다.²⁰⁾ 따라서 여성들은 남편과 일찍 사별하더라도 재혼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런데 「덴동어미화전가」에서 보이는 개가의 횟수는 무려 세 번이나 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당대의 혼인의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물론 덴동어미가 보여주는 혼인에 대한 욕구가 당대 여성들의 일반적 사고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덴동어미는 무려 세 번의 개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문학작품에서도 개가에 대해서 언급되고²¹⁾ 있다. 따라

20) 조선왕조에 있어서 재혼이란 거의 남성에게 국한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여성의 재혼은 악덕시되었고 그 소생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자연히 여성들은 재혼을 포기하게 되었다. 여성의 경우 비록 남편과 사별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혼하지 못하였고 조선왕조의 不更二夫라는 유교적 질서에 의하여 수절이 강요되었던 것이다. 설사 본인이 갈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들에 의하여 억제당하고 있었다. 특히 경국대전에서의 입법 조치는 양반 계층의 여성의 경우 평생 한 번만 혼인할 수 있고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더라도 수절해야한다는 풍속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양반 사회의 수절 풍속이 점차 일반 민간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사회 전체에 걸쳐 풍속화하게 된다.

“한국여성사”, 이대출판부, pp.434~440.

21) 김문기, 앞의 책, pp.77~88.

실제로 「과부가», 「청춘과부곡», 「단장이별곡», 「관동가」 등의 작품들은 당대의 개가금지라는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

서 개가에 대한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공론화될 만큼의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²²⁾ 「덴동어미화전가」의 창작 연대를 추정²³⁾하여 보건대 개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개가를 허한다는 법이 이미 발효가 된 과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매를 하는 덴동어미의 친정 부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회의 분위기가 개가를 이상하게 보는 입장에서 탈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외부의 조건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횃수를 떠나 다른 규방가사와 비교하였을 때 그 의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과부가」나 「청춘과부곡」에는 개가하지 못하고 홀로지내는 여성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청춘소년 빅발되면 다시정지 못하리라
아모기네 맛꿀아기 기가히서 편안하지
늙은몸 즈뢰되어 토공선심 못속인다.
세상스 심각하니 부부맞게 쏘잇는가
무정세월 여류하여 옥빈홍안 절노늬네
할미년에 부동으로 상설갓치 미온마음
봄눈갓치 푸러지고 암만히도 못참겠네²⁴⁾ 「과부가」

못홀너라 못홀너라 공방살임 못홀너라
엮어스나 겹어스나 임갓흐니 쏘잇는가
늙어스나 젊어스나 부부맞게 쏘잇는가 (중략)
삼십연분 아닐년가 스쥬팔즈 그러헿가
귀위부부 되엇거든 죽지말고 살엇거나
그리죽자 홀씩시면 맛나지나 말앗거나
부질어는 이내심스 어늬늬가 위로하리(중략)
이것더것 다버리고 불문에 귀의하여
후성 길이나 닷가불가 호노라²⁵⁾ 「청춘과부곡」

「과부가」를 보게 되면 과부로서의 삶을 견디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22) “한국여성사”, pp.303~308.

1894년 동학운동 때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할 것을 요구하였고, 갑신정변에 이르러 ‘과부의 재가는 자유에 맡긴다’는 항목이 들어가게 된다.

23) 작품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작품의 필사 연대인 1938년 이전인 1886년에 콜레라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창작의 연대는 1886년에서 1938년까지로 잡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작품 속 ‘병술년 괴질’이라는 사건은 주인공이 보내는 50년 이상의 생애에 있어서 초반 즉 21세에서 23세 무렵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면 사건으로부터 30년 정도의 시간을 뒤로 늦출 수 있다. 따라서 창작시기는 1916년에서 1938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24) 김문기, 앞의 책, p.86.

25) 김문기, 앞의 책, p.292.

수절이라는 봉건적 가치관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청춘과부곡」을 보면 독수공방의 어려움을 토로하다가 끝내는 불문에 귀의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이는 당대의 수절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여성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인간에게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런 본성을 이데올로기라는 명분에 의하여 억압함으로써 한숨과 눈물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는 「청춘과부곡」의 화자와 같은 여성들이 당대의 현실을 살았던 여성들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덴동어미화전가」로 가 보자. 덴동어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 청춘과녀를 만나게 되는 부분에서이다. 덴동어미는 화전놀이를 가면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청춘과녀를 보게 된다.

잔니을 짜라 참예하니 축척감창 뿐이로서
 보나니 족족 눈물이요 드나니 족족 한심일세
 천하만물이 썩이 잇건만 나는 옷지 썩이 읍나
 시소리 드러도 회심하고 쏫 핀걸 보어도 비참하니
 익고 답답 너팔자야 옷지 하여야 조홀게나
 가자하니 말 아니요 아니 가고는 옷지 홀고 (중략)
 슈야읍시 하 실피 우니 보나니마다 눈물너네
 홀 슈 읍서 허락하고 친정이라 도라오니
 트빱장이나 늙픈 낭기 날乙 보고 늦기는 듯(중략)
 너무 답답 못 살깃너 밤낫즈로 통곡하니
 양 곳 부모 의논하고 상쥬읍의 출가하니
 이상찰의 며느리 되어 이승발 후취로 드리가니

청춘과녀는 개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청춘과녀의 고민이 어떠한 원인 때문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하지만 청춘과녀가 개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아예 개가 자체를 포기하였던 전대의 의식과는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개가에 대한 가치관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덴동어미의 개가에 대한 경험담으로 옮겨지게 된다. 첫 번째의 개가는 같은 향리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승발의 후취로 가게 된다. 그런데 개가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시부모가 친정으로 덴동어미를 보내고 친정에서 부모의 중매에 의하여 개가를 하게 된다. 이는 조선조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졌던 개가에 대한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하겠다. 명분과 허울뿐이었던 수절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유교 이념에 갇혀서 현실에 안주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조 여인들의 의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VI. 결 론

이 연구는 「덴동어미화전기」의 특징을 고찰하기 위하여 「덴동어미화전기」의 서사적 특성, 작품에 나타난 현실과 삶의 모습에 대하여 고찰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덴동어미화전기」의 서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작품에 나타난 시점과 인물의 형상화, 작품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먼저 「덴동어미화전기」의 시점은 액자 구조 속에서 1인칭 시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서술자는 관찰자적 위치에서 덴동어미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내부 이야기에 들어가게 되면 덴동어미가 주된 서술자가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덴동어미는 자기 고백적인 서술자의 면모를 지니게 되는데 덴동어미의 이러한 모습은 현실의 삶과 덴동어미의 의지 사이에 모순관계를 형성하면서 삶의 이중성을 드러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덴동어미는 주어진 현실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고 극복하려는 인물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것은 계속되는 개가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신분의 몰락을 겪으면서도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려는 의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의 구조 또한 삶의 이중성 속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덴동어미는 긴 인생에서 그러한 슬픔과 기쁨을 반복해서 경험하였다. 여기서 「덴동어미화전기」의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 삶의 이중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덴동어미화전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 후기 사회상의 한 단면을 살필 수 있었다. 특히 덴동어미가 만나게 되는 남편들은 삶의 질곡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인물들이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 속에는 신분제의 이동, 재해, 질병, 화폐경제의 부각, 고리대업의 성행이라는 당대의 사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양상을 통하여 당시의 유교적 이념에 변화가 생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미숙 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고정희, 「된동어미화전기의 미적 특징과 아이러니」, 『국어교육』, 국어교육연구학회, 2003.
고혜경, 「“덴동어미 화전기”연구」, 『한국언어문학』 제 35집, 1995.
권영철 · 주정원, 『화전기연구』, 형설출판사, 1981.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3.
김중철 외 『한국 고전시가 작품론』, 집문당, 1991.
김학성, 『한국시가의 담론과 미학』, 보고서, 2004.

- 류해춘, 「화전가(경북대본)의 구조와 의미」, 『언어문학』 51, 한국어문학회, 1990.
- 박경주, 「여성 문학의 시각에서 본 19세기 여성의 실상과 의미, <변강쇠가>, <미얄과장>, <덴동어미화전가>의 비교를 통해」,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2001.
- _____, 「덴동어미의 여성의식의 변화 양상 고찰」,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1999.
- 박정혜, 「덴동어미 화전가에 나타난 혼인 및 개가의식 연구」,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1998.
- 박혜숙, 「덴동어미 화전가와 여성의 연대 의식」, 『여성문학연구』 14권, 한국여성문학회, 2006.
- _____, 「여성문학의 시각에서 본 <덴동어미화전가>」, 『인제논총』 제18권, 제2호. 인제대 1992.
- 서영숙, 「여성가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 신태수, 「<화전가>와 조선후기 개가 긍정문학의 대두」, 『영남어문학』 제 14집, 1988.
-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연구」, 박이정, 1999.
- 이훈상 外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2006.
- 정한기, 「가사에 나타난 서사적 기법의 특성 연구」, 『어문논문』, 2000.
- 정홍모, 「<덴동어미 화전가>의 세계인식과 조선 후기 몰락 하층민의 양상」, 『어문논집』 제 30집, 고려대 국어국문연구회, 1991.
- 최숙경·하현강, 『한국여성사』, 이화여대 출판부, 2000.
- 함복희, 「덴동어미 화전가의 서술특성과 주제적 의미」,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 허남춘, 「고전시가와 가악의 전통」, 월인, 1999.